

전국 2위 '빌라왕' 전세 사기 커넥션 밝혀졌다

광주경찰, 480억원대 사기 공범 부동산업체 직원 2명 구속영장 신청 수도권 빌라 가계약 맺고 매매가 올려 허위계약 후 임차인 모집 주선 압류 직전 빌라도 범행에 사용... 피해 규모 1000억원대로 불어날 듯

전국 2위 '빌라왕'으로 추정되는 정모씨와 공모한 이들의 모습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매매가보다 싸게 임대보증금을 받아 가보전 형으로 구속된 50대 정씨와 공모한 공범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경기지역의 중저가형 신축 주택(빌라)을 선의에 매매 가계약을 맺고 매매가격보다 싸게 임대보증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일명 '무자본 겹투자'로 480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공범들은 이 과정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전세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업체 30대 직원들인 이들은 임대를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정씨의 빌라를 소개해주며 수수료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씨가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압류 직전인 빌라를 다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류를 앞둔 빌라를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 더 비싼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맺고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해 매매 금액보다 더 비싼 임대보증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일명 매매가를 한 번 더 높은 '업(UP) 계약서'를 꾸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빌라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더 올려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와 공범 일당은 이렇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나눈 채기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추가로 금액을 높은 허위 매매계약이 맺어질 빌라만 총 27채에 달한 것으로 확인했고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자신의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무자본 겹투자 방식을 다시 한번 이용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세대의 임

대차가 종료되면 총 1000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정씨 일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보증보험에 들면 된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임차인들은 HUG로부터 '대위 변제'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모든 피해는 공사로 돌아가 국가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임차인 모집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 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고사 위장 9년 잠적 취업사기범 공소시효 만료 12일 남기고 검거

수억 원의 취업사기를 벌이고 사고사를 위장해 9년간 숨어다니던 지명수배범이 공소시효 만료 12일 전에 붙잡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제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여수산단 소재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합계 3억7500만 원을 편취하고, 9년간 잠적한 지명수배자 A(46)씨를 공소시효 완성 12일 전 검거해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여수산단 소재 화학물질 제조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협력업체 직원 등 5명을 상대로, 여수산단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3억7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할 상황에 처하자 여수시 화양면 선착장에서 낚시 중인 것처럼 꾸미고 렌트카를 바다에 밀어 빠뜨려 사망한 것처럼 속이고 도망쳤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통화내역, 배달앱 사용내역 등을 확보해 A씨의 은신처를 확인해 붙잡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5·18단체-특전사동지회 교류 참배로 화합

5월 3단체 계엄군 묘소 참배, 특전사동지회 5·18묘지 참배키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최근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 '교류 참배'를 추진하고 5·18 단체와 특전사 단체 간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5월 3단체가 오는 17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5·18 당시 숨진 계엄군의 묘소를 참배하면, 이어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가 다음달 초 광주 시 북구 망월동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식이다.

5월 단체는 그간 특전사동지회 등 특전사 출신 인사와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 1980년 5월 항쟁 당시 특전사·공수부대 등이 투입돼 유혈진압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5월 단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계엄군 23명의 묘소를 참배한 적이 없었고, 특전사 단체 또한 5·18민주묘지를 공식 참배한 적이 없었다.

5·18부상자회에 따르면 최근 5월 단체는 진압 작전에 투입된 부대원 대다수는 전두환·노태우 군사 정권의 부당한 명령을 받아 따를 수밖에 없었

며 이를 또한 지난 43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점을 이해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전사동지회 중앙회는 회의를 거쳐 오는 14일 까지 교류 참배를 할 지 여부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특전사 단체 또한 5월 단체에 화해 손길을 뻗고 있다.

특전사동지회 광주시지부 관계자 3명은 11일 광주 시 서구 차평동 5·18기념문화센터를 방문해 5월 단체에게 갈급 20박스를 전달했다. 특전사 단체가 5월 단체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계엄군들이라고 모두 광주사람 학살하겠다고 온 사람은 아니고, 상부의 부당한 명령 하나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많다"며 "많은 세월이 흘렀고, 나서는 사죄의 의사를 밝힌 계엄군의 뜻을 받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 주택에 멧돼지 출몰...26분 만에 사살

광주시 동구의 한 주택에 멧돼지가 출몰해 26분 만에 사살 처리됐다.

11일 광주동부소방과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월남동의 한 주택에서 "멧돼지가 마당에 들어와 개와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멧돼지는 몸 길이 1m 가량 크기로, 경찰·소방 출동 당시 집 주인이 마당에 묶어놓고 기르는 진돗개와 싸워 상처가 난 상태였다.

출동한 소방 구조대가 멧돼지에게 마취총을 한 발 쏘으나 마취 효과가 들지 않았다. 소방·경찰은 멧돼지를 생포하기에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 전문

업사의 도움을 받아 협종 세 발을 발포해 사살했다.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었으며, 멧돼지와 싸운 진돗개도 별다른 상처 없이 건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집 주인이 대문을 열어둔 채 잠시 외출하고 온 사이 인근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집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집은 도시철도 1호선 녹동역 인근에 있으며 무등산 국립공원 산자락에 자리잡았다.

경찰은 멧돼지 사체를 광주시 동구청에 인계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소방본부 소방관들이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열린 1주기 추모식에서 희생자들에게 추모의 뜻을 담아 경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주기 추모식 엄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1주기를 기리는 추모식이 11일 오후 2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에서 엄수됐다.

추모식은 화정아이파크 희생자가족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앞서 오전 9시부터 사고 현장 내부에 분향소를 열고 추모객을 맞았다.

사고 이후 29일간 구조 활동을 기록한 동영상을 시청한 뒤, 희생자 여섯 명의 이름을 하나 하나 되새기며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헌화 및 추모사 낭독 등이 이어졌다.

이날은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자는 희생자가족협의회 제안에 따라 화정아이파크 공

사 현장 작업자 등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안전 결의대회도 열었다.

결의대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광주에 다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폐허의 화정동 현장을 화합과 상생의 장으로 만들 것 ▲억울하게 희생된 여섯 분의 값진 희생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의 기능이 될 것을 결의했다.

희생자고(故)김상현(당시 55)씨의 아들인 김명보(26)씨는 "아버지를 많이 보고 싶고 그립다"며 "이제는 슬픔에 익숙해졌지만 무덤덤하다"며 "그때 도 슬픔에 갇히지 않고, 더 당당하게 열심히 살겠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한 시민은 "1년 전 끔찍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안타까운 마음에 헌화하러 왔다"며 "광주 도시 한복판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확실히 세워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정호 화정아이파크 희생자가족협의회 대표는 "최근 수많은 참사 속에서 국가와 행정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겠단 것뿐이고 짓밟히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세상이 됐다"며 "광주에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없도록, 우리 사회가 최소한 죽음에 예의를 갖추는 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6063	1 2	1 동소 290-2 1064㎡ 나주시 불향면 유곡리 산120-1 855㎡ 2 동소 291-2 307㎡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임야 임야 전	59,153,000 59,153,000	일괄매각, 잠플동 우거제보요소재여 부불명
2022타경 6148	1 2	영광군 군서면 남곡리 443-15 358㎡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영광군 군서면 남곡리 718-4 3746.9㎡	전 답	8,950,000 8,950,000	지적상행차, 연고 미상보요소재
2022타경 6384	1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산75-1 15767㎡ [현황지상권만 보유]	임야	220,738,000	임부지상승전선로 통과하는선하지
2022타경 6674	1	영광군 법성면 화천리 695-5 4635.1㎡	답	88,066,900	농지취득자격증명 88,066,900
2022타경 71166	1	남구 주월동 산169 25119㎡ [공유지이전등기 1/1134지분전부, 지적계열명, 맹지, 일부지 상타인 소유로 추정되는 제외지권소재하 나 경계불명]	임야	23,258,500	지분매각, 공유지 우선매수권 1회제 한, 연고미상보요 소재
2022타경 72787	1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254 3491㎡ [공유지 장성군 1/3지분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4,437,070	지분매각, 공유지 우선매수권 1회제 한
2022타경 5800	1	북구 오지동 914-24 125.2㎡ [백운동, 대흥백운스카이1차아파트184.99㎡ 사유소 13.01㎡] 2층주택55.53㎡ 부속건물 단층보소0.81㎡ 제외의 거주동55.3㎡ [물건 번호: 부속건물단층보소현황명실 [기초대]]	대 단독주택, 사무소	212,282,520 212,282,52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사무소 사유소 이용중 [기초대]
2022타경 71456	1	공성군 옥과면 죽림1길 8 단층49.50㎡ 부 속건물 단층보소181㎡ (공부상등도 '퇴비 사' '이나현황' '창고' [옥북1-나]) 공성군 옥과면 죽림1길 386 134㎡	단독주택 대	35,548,500 35,548,500	일괄매각, 일부지 상인점지 [149번경] 건물일부소재 (경 계불명)
2022타경 3910	1 3	나주시 불향면 옥곡리 산28-7 580㎡ [공부 상지적임야]나현황요지및과수원, 연고미상 보요3기소재]	임야	31,620,000 31,620,000	제외의수목매각포 함
2022타경 5947	1	나주시 불향면 유곡리 290-3 645㎡ 1 동소 291-4 819㎡ 1 동소 산120-7 1415㎡	전 전 임야	254,910,000 254,910,000	일괄매각, 잠플동 우거제보요소재여 부불명, 농지취득 자격증명요 [옥북1 .3]

● 공인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여부 또는 최고매수신고인 및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여부 여부(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각이 불가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음)
② 공유지가 민사청결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 또는 우거제보요소재여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일 때 우선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매각이 불가한 경우 그 공유자를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인으로 한다.
2. 매각결정일 : 2023. 2. 2. [목] 10:00
3.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4. 매각방법
① 입찰방에 비치된 기입양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함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매각가격의 1% [10미만인]에 해당하는 금액이론 발행의 자기할부 또는 현금 중비하거나 지급보증계약서를 제출한 문서 [일괄 보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인원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 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보증금의 투입이 종료되면 관방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이 아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 본인 상으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매수신고인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계약 및 대금납부
①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일 때 매각자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자가 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결정일 다음날인 매수인에게 하는 경우로 생길 수 있음이다.
② 매각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매각결정일 다음날인 날의 3일만까지 공전 매수인에게 매각대금 및 자금을, 변통을 납부하면 대금납부후 사유해, 관방서 매각처에 매각이 실시하지 않는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등기, 기입행위는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권부나 기입행위, 알송송기,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국민연금보험료보험료 기타 관련 신청서를 관방서 매각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금납부후 매각이 확정되면 매각이 불가할 수 있음이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담보권자는 부동산 매각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를 신청할 수 있음이다.
8. 주의사항
① 매각의 주체 또는 상거래에 관여한 당사자 및 상환된 납부금에 대한 주지 단독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을 하는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이다.
② 입찰행위의 유효에 제3자가 의하여 매각일이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일, 현황조사보고서 및 결정결정서의 사본 등을 수령하면 민사 청결(신규)에 비하여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통지 및 통지 관련 정보를 알선 후 일괄매각을 판단하지 않는다.
매각일과 매각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이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검색공고 - 매각공고 선택]
③ 대한민국 법원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상 제공하도록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연방의 의무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유류권 매각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금납부후 민사 청결(신규)에 비하여거나 법원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통지 및 통지 관련 정보를 알선 후 일괄매각을 판단하지 않는다. 매각일과 매각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이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검색공고 - 매각공고 선택]
④ 대한민국 법원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상 제공하도록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연방의 의무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유류권 매각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금납부후 민사 청결(신규)에 비하여거나 법원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통지 및 통지 관련 정보를 알선 후 일괄매각을 판단하지 않는다. 매각일과 매각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이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검색공고 - 매각공고 선택]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공정보

2023. 1. 12.